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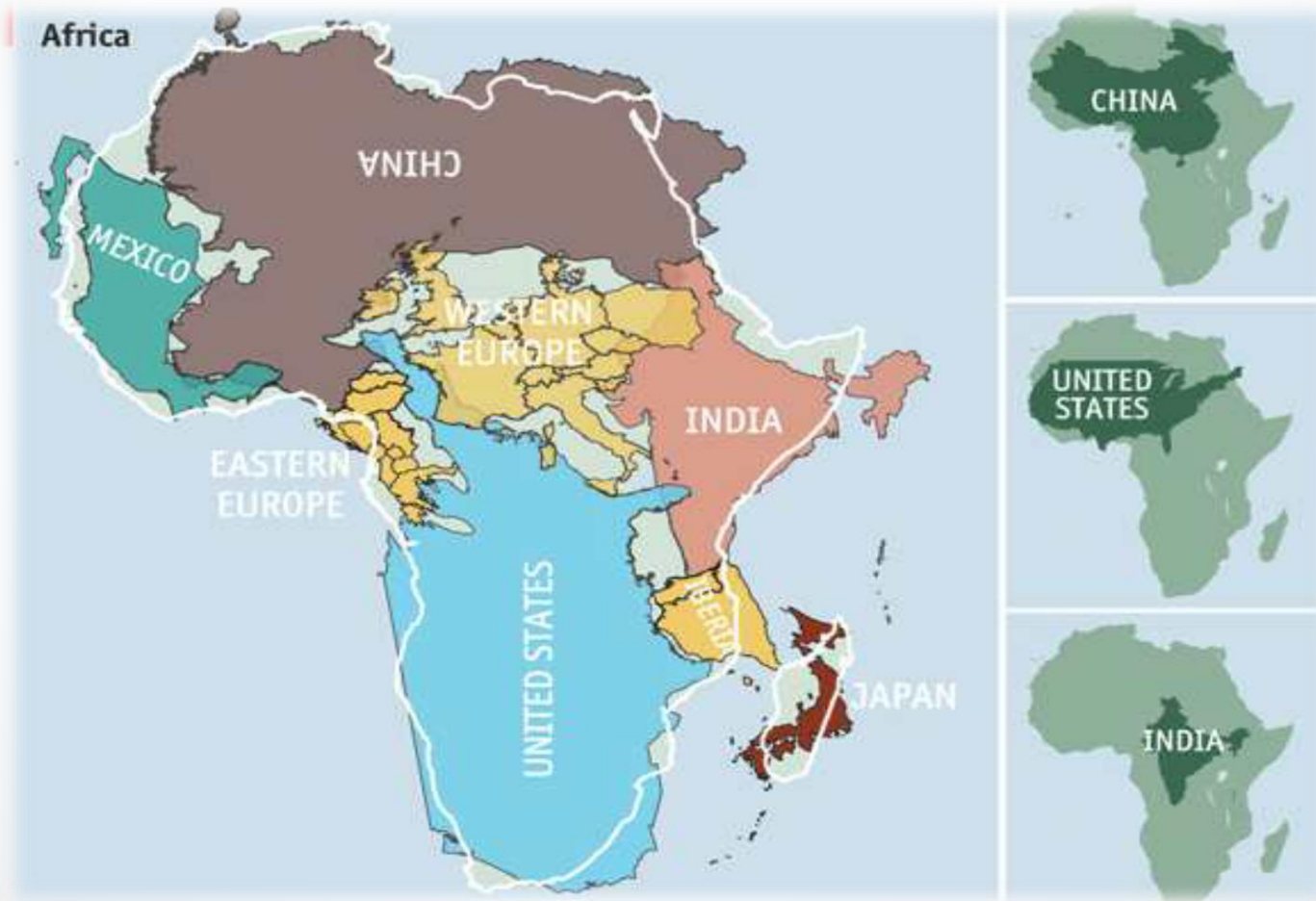
아프리카 현황 및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2018. 10. 04

KOTRA 홍성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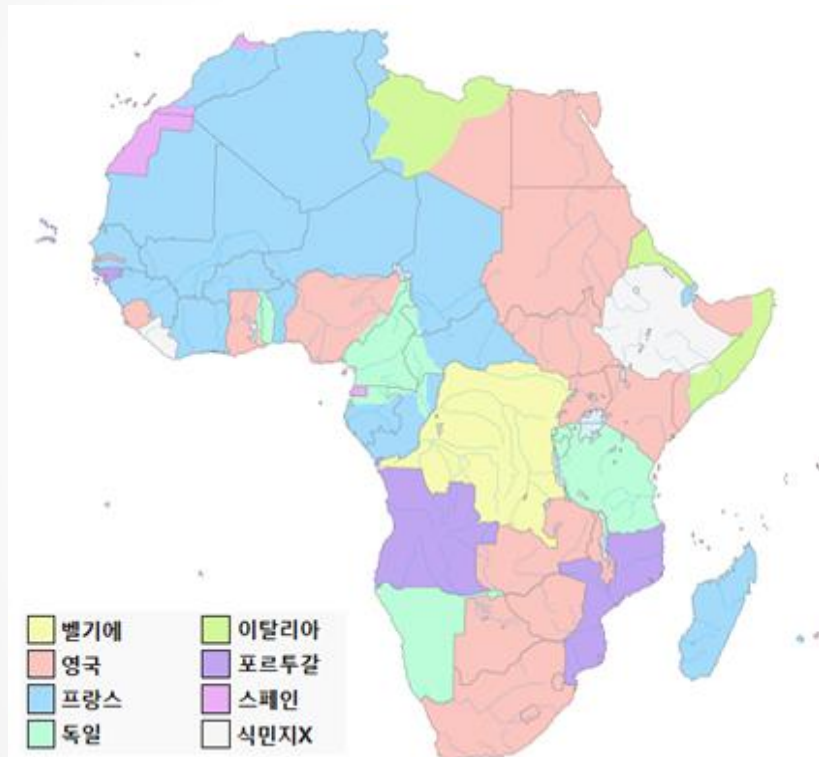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가. 아프리카의 실제 크기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나. 아프리카의 다양성



(식민지 지도)



(언어 지도)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다. 정치 리스크

아프리카 장기집권 지도자들

XXXXX 대통령 선출 연도

연도	국가	지도자
2005	토고	파우레 그나싱베
1982	카메룬	폴 비야
1979	적도 기니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1979-92, 1997	콩고 공화국	드나 사수 은게소
1979	앙골라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 2017.9. 물러남
1999	알제리	압델 부테플리카
1990	차드	이드리스 데비
1989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
1993	에리트레아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1999	지부티	이스마엘 오마르 굴레
1986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2000	르완다	폴 카가메
2001	콩고 민주 공화국	조세프 카빌라
1980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2005	부룬디	피에르 은쿠룬지자

자료 AFP

news 1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라. 경제 장애 요인

1) 만성적인 외화부족

- 생필품의 수입의존 및 정치 부패로 인한 원조자금 고갈
- 외환 부족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
- 2015년-2016년 유가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 생필품 수입대금, 현지 건설공사 대금 지불 차질

2) 원조자금 상당부분이 채무로 전환

- 차관을 생산성 있는 제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 선진국의 원조(차관)자금이 빚으로 전환
 - 특히 중국의 무절제한 차관금액이 빚으로 전환
 - 정치 지도자들의 차관금액 횡령 다반사
- 채무 확대에 따라 선진국에 예속화 가속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라. 경제 장애 요인

3) 원자재가격의 폭락 위험에 노출

- 구리, 금, 원유 등의 가격폭락 위험에 노출
 - 아프리카에 자원부국 다수 존재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잠비아 등)
 - 2015년 원유가 폭락, 구리가격 폭락으로 해당국 경제 마비
- 유가하락 기간 중 산유국(앙골라, 나이지리아)의 위기
 - 동 산유국의 높은 석유의존도(90%이상)으로 큰 폭의 재정감소
 - 생필품 수입 축소, 외국업체에 대한 건설대금 지급불능, 외환송금 금지
-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경제 파탄
 - 자원부국인 콩고는 2015년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외국 구리업체의 현지 철수, 광산가동시간 단축, 종업원 5천여명 해고
 - 달러화 대비 생필품 가격 고공행진
 - 달러화 대비 현지화 가치 하락 및 생필품 가격 급등 (폭동 조짐)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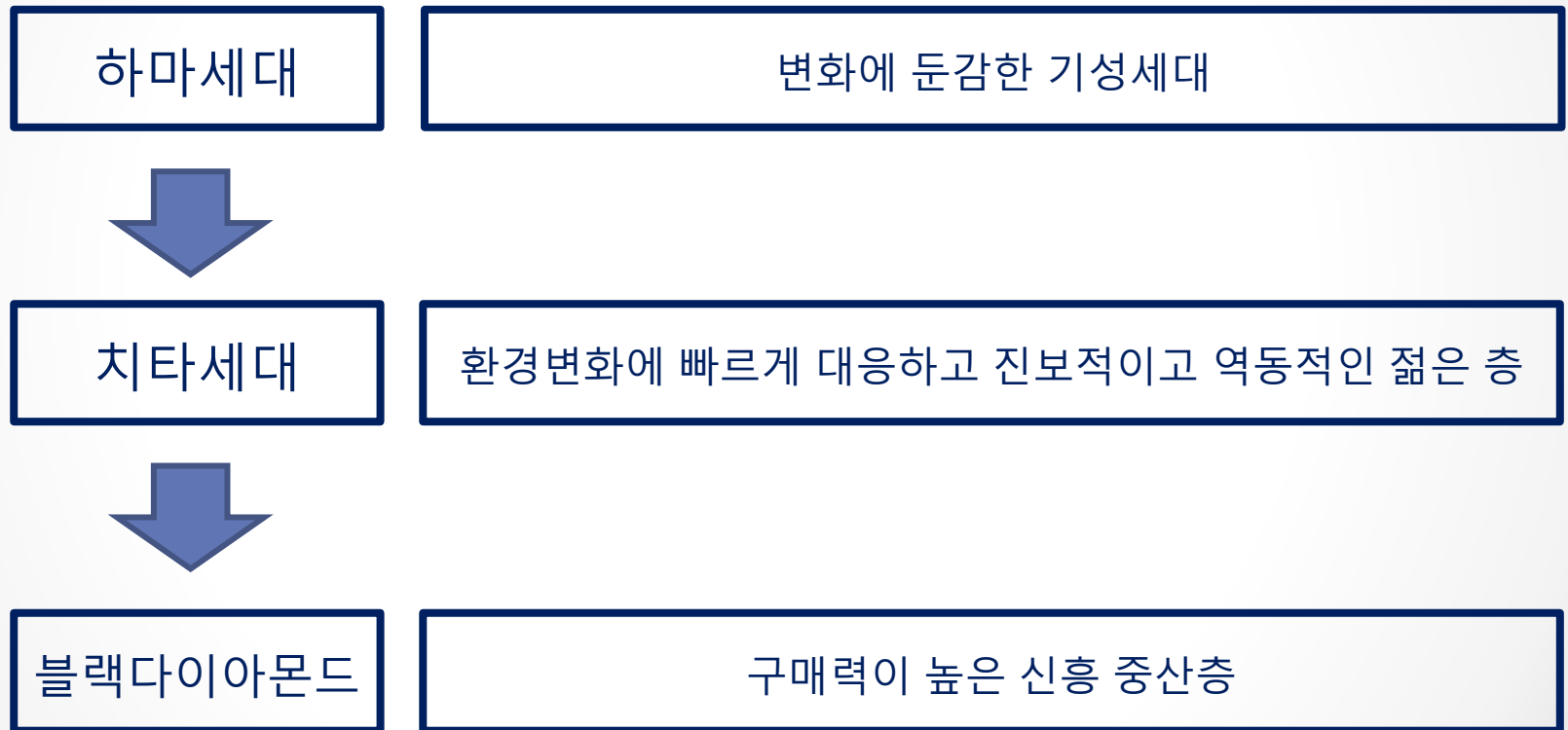
라. 경제 장애 요인

4) 인프라 부족

- 내전, 투자미흡 등으로 인프라 부족
 - 내전으로 인프라 상당부분 파괴
 - 자체예산 부족, 외국기업 투자유치 부족으로 인프라 미흡
 - * 투자여건 열악, 투자수익율 저조, 정치 불안으로 인한 투자 신뢰 하락
- 인프라 저조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수출경쟁력 약화
 - 수입품의 경우 고 물류비에 따른 소비자가격 상승
 - * 특히 곡물, 과일, 야채 등의 소비자가격 매우 높음
 - 제품의 수출가격 상승 및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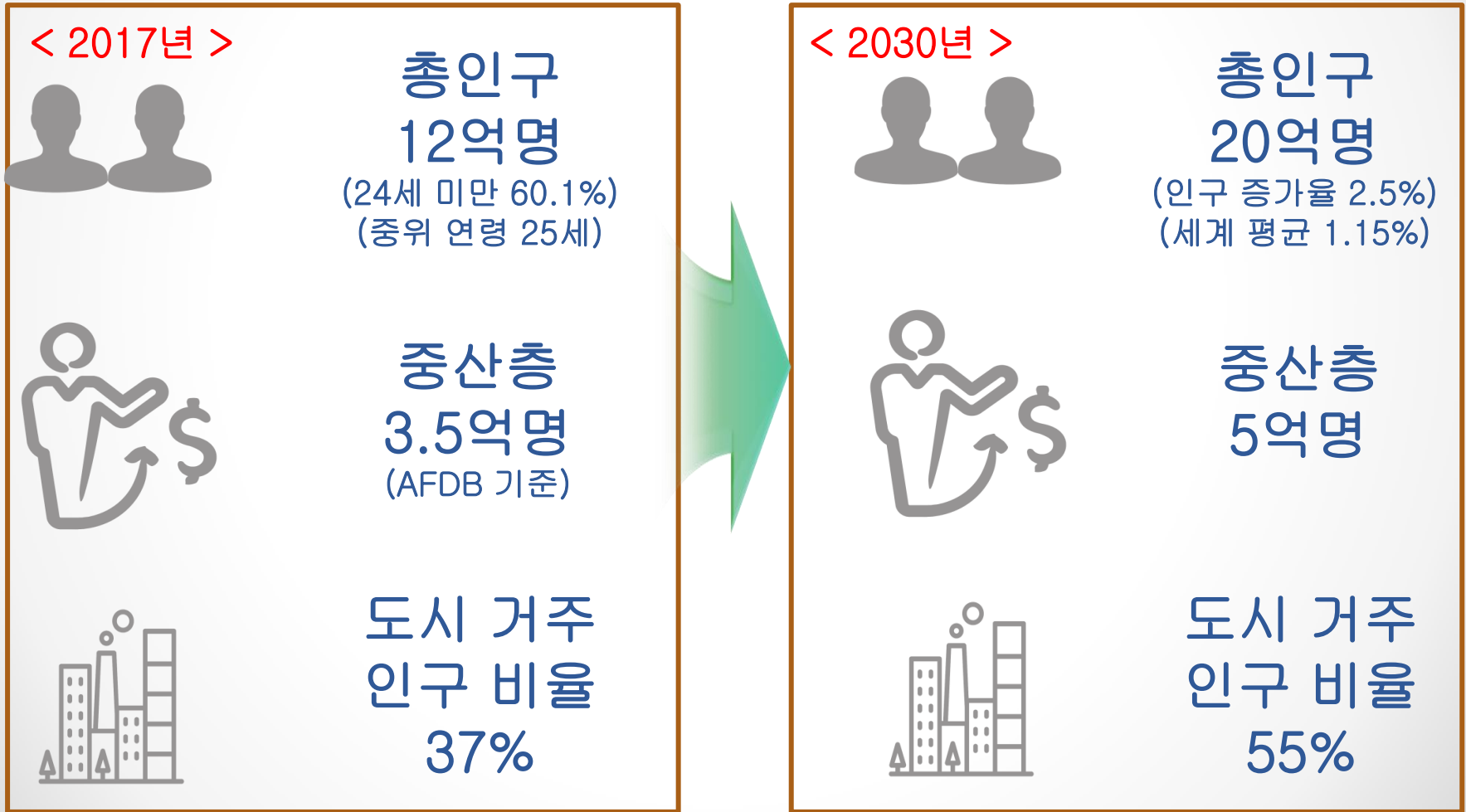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마. 아프리카 세대의 변화



1.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

바. 아프리카 주요 지표



2. 변화중인 아프리카

가. 정보통신기술 확산

- 아프리카 무선전화 가입자 수 증가
 - 2011년 3.8억명(43.1%) → 2016년 6억명(60.3%)
- 인터넷 이용자 폭발적 성장 (매년 15% 이상)

국가/지역	유선전화 보급률 (per 100ppl)		무선전화 가입자 (per 100ppl)		인터넷 이용자 (% of population)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세계	17.2	13.5	84.2	101.5	31.7%	45.9%
SSA	1.4	1.0	43.1	60.3	12.1%	19.9%

(자료 : WORLD BANK)



선진국에서 진행되었던 발전단계를 비약적으로 점프

-> 드론을 이용한 물류혁신, 모바일 머니 등 결제방식 다변화,
유선전화/무선전화 단계를 생략하고 스마트폰 단계로 직행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나. 전자정부 도입 추세

- 전자정부 도입 확대 (행정 투명성 강화 및 공공 부문의 접근성 향상)
(AfDB, 2017)
 - 아프리카 국가의 전자정부 개발 지수 (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 (모리셔스, 남아공, 세이셸, 보츠와나는 개발 지수는 높음)
- SS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전자정부 도입 움직임 적극적 (Doing Business 2018)
- 한국의 대 아프리카 전자정부 진출 추진 현황
 - 한(관세청)-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계약 (2012)
 - 한-보츠와나,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2015)
 - 한-케냐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 (2017)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다. 인프라 개발 활발

- 도로, 철도 등 물류 인프라 개선에 따라 물류비용 감소 추세

(사례1) 물류시간 감소 (케냐 몸바사 ~ 우간다 캄팔라 구간)

* 15일 (2015) -> 10.7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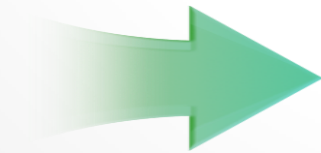
물류비 감소

* 34만 실링 (2011) -> 22.7만 실링 (2016)

⇒ 동아프리카 도로 개선 및 시스템 환경 개선에 기인

(사례2) 주요 터미널간 트럭 이동시간 18% 감소 (2011/ 2016)

⇒ 다레살람(탄자니아) ~ 키갈리(르완다), 캄팔라(우간다)



물류비 감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라. 소비패턴의 변화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라. 소비패턴의 변화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라. 소비패턴의 변화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라. 소비패턴의 변화

콩고의 부유층 매장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라. 소비패턴의 변화

- 젊은이들이 변화 주도
 - 블랙 다이아몬드 세대 (신세대 소비자)의 등장
 - 유행에 민감하며, 가격보다는 브랜드와 품질 중시
 - 소비 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인 변화를 주도
 - 아프리카의 평균 연령은 2050년 25.4세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
- 전자상거래 꾸준히 증가
 - 2018년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 500억 달러 전망 (Deloitte)
 - Take a lot(남아공), Jumia(나이지리아) 등 대형 온라인 매장의 등장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마. 산업 다각화

- 제조업 육성
 - 식품을 포함한 생필품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자체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희망
 - 국가차원의 전용공단 조성
 - 서비스업, 농업+과학 기술도 병행 발전
 - 제조업 발전을 위해 외투기업 유치에 노력 집중
 - * 인프라 환경 열악, 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법 체제, 보호 노력 미흡
- 스타트업 기업 육성
 - 아프리카 노동인구 중 22%가 스타트업 기업 시작
 - 이 중, 20%가 기존 시장에 없는 새로운 산업에 도전
- 산업다각화 노력
 - 기존 경제는 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유가, 원자재 가격 의존도 탈피 위해 산업다각화 노력 경주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마. 산업 다각화

- 농업 혁신 노력
 - 농업은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산업 (기아자 비율 축소 노력)
 - * 광활한 농지, 따뜻한 날씨, 충분한 강수량 등 농업에 적합한 환경
 - * 막대한 물류비로 인한 비싼 비료가격, 농기계 등 부족한 농업 장비
 - 아프리카 농업은 기후변화(특히 농업용수 조절)에 매우 취약
 - 스마트 농업, 품종 개량 등 선진기술 이전 노력 (KOPIA)

- 가스전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
 - 청정, 저렴, 오일 대체 에너지원 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모잠비크에 한국가스공사 진출 (현지 가스보급사업 추진)

2. 변화중인 아프리카

바. 민주화 움직임

-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지수 꾸준히 개선 (Ibrahim Index 2017)
 - 모리셔스가 5년 연속 1등을 차지하였으며 세이셸(2위), 보츠와나(3위), 케냐(13위), 코트디부아르(20위) 약진이 두드러짐.
- 일부 국가의 독재 청산 및 민주정치 결과에 순응 (케냐, 감비아 등)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정치 참여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EIU)
- 그러나 다수 국가가 여전히 독재 국가로 남아있음.
 -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주변국 독재자 지원 (독재권력간 연합)
 - * 미국, EU 등 선진국의 민주화 요구에 내정간섭이라고 일축

2. 변화중인 아프리카

사. 강대국의 아프리카 진출 경쟁

1. 중국의 전략

가. 중국의 전략

- 무조건적 원조 : 서방에서 거부하는 원조도 무조건적으로 원조
- 내정 비간섭 : 정권의 정통성과 무관한 지원 - 부패정권과 결탁 가능
- 정부차원의 참여 :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 (장기적 관점)
 - 초기 투자비용이 커 민간기업 참여가 어렵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도 참여
- 열악한 지역 진출 : 중국 노동자는 아프리카 수준의 주거, 생활방식에 금방 익숙

나. 중국 전략의 문제점

- 사업 종료후 중국인 노동자의 현지 체류 및 현지 시장 잠식 (현지인과의 결혼 비선호)
- 원조사업 독식으로 실질 혜택 감소
- 현지 제조업 발달에 장애 : 중국산 초저가 제품의 진출, 중국산 원자재 사용
- 자원과 인프라 건설을 교환하는 형태로서 일부 국가의 반 중국 정서 확산
 - 이에 협력 관계를 환경, 기후, 농업, 의료 등으로 확대하면서 이미지 변신 시도

2. 변화중인 아프리카

사. 강대국의 아프리카 진출 경쟁

2. 미국의 전략

가. 주요 정책

- 대 아프리카 정책 변경 : 원조대상, 자원확보 대상 -> 경제통상파트너 (2013년 이후)
 - 사람과 재능,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인식 및 협력관계 구축 (기회 및 일자리 창출)
- 중국 견제 : 급성장중인 아프리카 시장 선점 (2013년 중국과 대아프리카 교역량 역전)
- 트럼프 당선 이후 AGOA 유지, 대 수단 경제제재 해제

나. 세부 내용

- 민주적 제도 강화 및 평화와 안보 강화
- 미-아프리카 정상회담 추진 (중-아 정상회담에 비해 어젠다 확대)
- 농촌 및 소외지역 전력공급 및 식량안보지원 확대
- 차세대를 위한 통치 : 부패 척결을 통한 투자자 신뢰도 향상
- 청년에 대한 기술과 기회 제공
- 양자간 FTA 체결 및 BIT(양자투자협정) 체결

2. 변화중인 아프리카

사. 강대국의 아프리카 진출 경쟁

3. 일본/ 인도

- 인도는 7세기부터 교역 / 역사적 유대관계
- 일본은 JAICA 등을 통하여 원조 확대, 외교적 노력

4. 레바논

- 불어권 지역에 집중 진출
 - 프랑코폰 지역에서의 언어적 잇점, 대가족 제도로 인한 자체 인력 조달 용이
- 정직하지 못한 사업 마인드로 부패 정권과 쉽게 결탁 - 시장 주도권 확보

5. 한국

- 아프리카와 협력기반 조성
 - AfDB (2018. 5) 연차총회 부산개최 및 아프리카지역공동체 (SADC, EAC 등), AU와 협력
- 그러나 경쟁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

3.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가. 취업환경

1) 생활환경 열악

- 인터넷, 전화 사용 제약 (통신망 발달 취약)
 - 한국에서 누렸던 문화생활과의 괴리
- 치안 불안
- 생활 제약 (여가 활동, 이동 수단, 연중 더운 날씨)
- 의료 인프라 취약

2) 현지 진출의 제약 요건

- 한국 인력에 대한 고임금 부담 <- 현지 진출기업은 현지 저임금을 타겟팅
- 산업 미발달로 우리 인력이 취업 가능한 현지기업 극소
- 아프리카 내 실업문제 심각 (선진국 유학 후 유턴인력과의 경쟁)
- 비자갱신 조건 엄격 (후진국일수록 출입국 여건 열악)
- 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간섭 심각

3.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나. 한국기업(인력) 진출 현황

1) 한국기업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

- 남아공 22개사/ 나이지리아 22개사/ 에디오피아 14개사/
탄자니아 12개사/ 가나 10개사/ 모잠비크 6개사/ 기타국가 5개사 미만/
KOICA (봉사활동, 지원활동 인력)

2) 교포기업 현황

- 교포기업 수 : 정확한 실태 미 파악 (현지국적기업/ 교포의 해외지사)
- 주요 분야 : 가발/ 물류/ 화학제품/ 자동차 부문/ 교통, 운수

3) 기타

- UN산하기구
- KOICA 인력/ 사업수행기업
- 한국의료산업 진출 (아디스아바바 명성병원 의료인력 150명 진출)

3.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다.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긍정 요인

1) 선진국에 비해 폭 넓은 사업 기회 (창업시)

-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교포기업이 유럽에 비해 많음.
- 우리의 60-70년대 산업을 답습하고 있어 산업 흐름을 쉽게 파악 가능
- 현지 수준에 적합한 산업을 찾아서 바로 적용 가능
 - 특히 한국내 사양산업의 현지 적용 가능 및 국산 기계, 장비 인기

2) 백인 및 아시아인(한국/일본)에 대한 신뢰성

- 현지인(흑인)의 입장에서 아시아인을 백인으로 대우
- 한국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국인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교포기업이 주요 보직에 한국인 인력 희망

- 현지인에 비해 능력, 책임감 월등

4) 주변국 진출 교포기업과의 유대 (경험 공유) : OKTA 활동 등

3.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라.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기회

1) 교포기업

-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안정된 교포기업에 취업
 - 경쟁업체 : 인도, 레바논, 프랑스, 벨기에 기업 등
 - 대가족제도인 인도, 레바논인들은 20세 이전에 이미 회사 경영에 참여
(가족 내에서 유능한 인력 유통 용이)
- 다수의 교포기업이 한국인 인력 희망
 - 현지인 직원의 경쟁기업과의 유착, 횡령 부담감 감소
 - 사업 확장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인력 절대 필요 (환경변화대응)
 - 열악한 환경으로 상시 구인난에 직면 (신규직원의 평균 근무기간 2년미만)

2) 현지진출 외국기업 취업

- (사례) 한국인 기술자 1개팀(5명)이 콩고진출 AUFS사(남아공)에 합류
 - 현지정부의 전국적 통관감시설비 제공/운용에 참가
- 보안설비, 통신, 교통관리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인 기술팀 진출 기회

3.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라.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기회

3) 국제기구 직원으로 진출

- 아프리카 진출 국제기구의 종류

- UN 평화유지군, UNDP, FAO, 세계은행, 아프리카 은행 등

4) 현지 창업

- 현지인과 협업 장려

- 단독창업의 위험
- 현지인과 협업으로 장애 극복 및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 위기시(과도한 세금부과, 법적문제 등) 현지인의 도움 가능

- 한국기업의 현지지사, KOICA 등을 통한 현지 경험 후 창업 권고

- 유망 창업분야

- 광고(옥외,전광판)장비, 인쇄설비, 음료, 자동차 부품, 브랜드의류

* tip: 선진국에서 히트한 업종 중 현지 미진출 업종을 대상으로 고려

3.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마. 교포기업 취업시 유의사항

- 1) 경영층의 성향 파악
 - 사기성이 있는지 확인 (불법업체, 상습적인 임금체불, 복지 취약)
 - KOTRA, 대사관 등에 반드시 확인 (교포기업 중 불량경영자 간혹 있음)
- 2) 기업의 내용 파악
 - 성장가능성, 경영자의 마인드
 - 복지수준
- 3) 최소 5년 이상 장기근무 결심 필요
 - 맛보기로 취업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취업
 -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도 함께 성장 (고속 승진)
 - 교포기업도 한국직원 채용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을 배려 (복지, 주거 등)
 - 배운다는 자세 : 수출입절차, 물류, 아프리카 금융, 현지인 관리, 창업 등
 - 상당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 처우가 나쁘지 않은 것이 정상
- 4)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언어(특히 영어) 능력

3. 우리 청년인력의 아프리카 진출

바. 해외취업 구인 기회

- 월드잡플러스 사이트 : www.worldjob.or.kr
 - 교포기업 또는 KOTRA에서 구인정보 입수시 위 사이트에 등재
- KOTRA를 통한 해외구인업체 접촉
 - 해외취업박람회 연 2회 (2018.5월 글로벌대전, 11월 일본취업박람회)
 - 무역관을 통한 교포기업 구인동향 파악

감사합니다

(끝)